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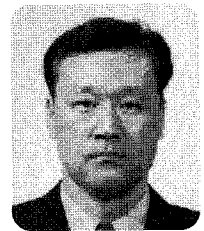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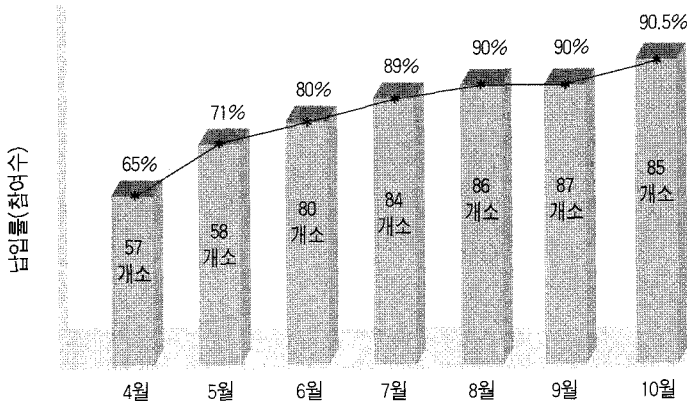


2005년도 양돈자조활동자금 사업 추진 방향

1. 머리말

2005 년도 사업 추진에 앞서 2004년도 양돈자조금 사업의 성과를 되돌아보고 평가의 과정을 거쳐야 하겠지만, 지난 8월 이후 본격화된 사업의 결과를 4개월여만에 내놓는다는 것에는 상당한 무리가 있다. 실제로 지난 2004년 12월 15일을 기준으로 볼 때 총사업비 80억원에서 실제 집행된 것은 총 사업비의 30%를 갓 넘어선 24억원 정도였다. 물론 나머지 사업의 대부분이 1월 중에는 마무리가 될 것이지만 전체적인 평가 결과가 나오려면 오는 3월 이후는 되어야 할 것이다. 게다가 올해 역시 사업 초기 단계라 지난해와 완전히 다른 새로운 사업을 시행하는 것 보다는 지난해와 같이 양돈자조금 사업의 정착과 안정에 노력하면서 산업 현안에 대한 융통성 있는 대처와 정책 개발을 통해 양돈농가들이 좀 더 수월하게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생산 기반을 확고히 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할

〈표 1〉 2004년도 농가대출금 월별 조성실적(4~10월)



고진각 사무국장
양돈자조금관리위원회 사무국

〈표 2〉 2004년도 양돈자조금 사업비 집행 내역(잠정치, 2004. 12. 15 현재)

(단위 : 천원)

항 목	당초예산	기집행액	기집행률	추가집행예산액	총집행누계액	예산집행률
소 비 홍 보	4,346,000	1,614,646	37.2%	2,459,245	4,073,891	93.7%
교육 및 정보제공	1,488,500	332,757	22.4%	344,860	677,617	45.5%
조 사 연 구	495,000	171,691	34.7%	235,687	407,378	82.3%
징 수 수 수료	120,000	70,000	58.3%	25,000	95,000	79.2%
운 영 관 리	400,000	255,762	63.9%	78,353	334,115	83.5%
예 비 비	1,150,500	-	-	-	-	-
총 계	8,000,000	2,444,855	30.6%	3,143,145	5,588,000	69.9%

것이다.

또 지난해부터 본격화된 FTA 체결이 동남아시아, 유럽, 남미 국가 등과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국산 돼지고기가 국내외 시장에서 부동의 입지를 확고히 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한다. 거기에 안전한 먹거리, 친환경 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욕구가 점점 더 커지고 분뇨처리, 약취법 등의 환경 규제가 강도를 더하면서 농가들이 부딪히게 되는 어려움도 심화될 것이다.

이러한 이유 등으로 2005년도 양돈자조금 사업은 지난 2004년도 사업의 방향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못한다. 하지만 사업방향은 2004년도와 거의 비슷해도 그 내용에 있어서는 훨씬 구체화되고 심도있게 진행될 것이다.

2. 2005년도 양돈자조금 사업비 조성 및 사업 추진 방향

가. 2005년도 양돈자조금 사업비 조성 계획

2005년도 양돈자조금 사업예산은 총 110억원이다. 110억원의 내역은 농가 거출금 60억원과 정부 지원금 45억원에 2004년 농가 거출금 중 5억원의 이월금을 더한 것이다(〈표 3〉 참조).

2004년 이월금 5억원은 추정 금액으로 앞으로의 거출금 납부 실적과 사업 집행 내역에 따라

〈표 3〉 2005년도 양돈자조금 사업비 조성 계획

2005년도 양돈자조금 조성금액

◎조성기간 : 2004. 12. 1 - 2005. 11. 30 (12개월)

◎조성금액 : 110억원/년

- 농가 거출금 : 15,000천두 × 400원/두 = 60억원
- 전기 이월금 : 2004년 농가 거출금중 이월금 = 5억원
- 정부 지원금 : 농가거출금에 대한 100% 이내 지원 = 45억원

변동이 있을 수 있다. 또한 정부 지원금도 현재 45억원으로 농가 거출금의 75%로 예산이 책정되어 있긴 하지만, 농가 거출금이 45억원 이상 견딜 경우 농가 거출금 100%에 상응하는 추가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농림부의 확약을 받아 둔 상태이다.

요컨대 농가의 자발적인 참여로 하루빨리 거출률을 100% 가까이 높이고 정부 지원금을 안정적으로 약속받는 것이 앞으로의 사업 정착과 안정에 큰 힘이 될 것이다.

나. 2005년도 사업 추진 방향

1) 사업 기반 구축 및 안정

2004년도에 시작한 양돈자조금 사업이 본격적으로 뿌리를 내리는 시기가 될 것이다. 양돈자조금 농가 납부율은 현재 90%를 넘어서고 있다. 사업을 시작한지 첫 돌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놀라운 성과가 될 것이다. 항상 업계의 선두를 달리며 출선수범한 양돈농가들의 적극성이 이루어낸 결과다. 2005년도에는 비록 일부이지만 비협조 도축장과 농가에 대한 개별적인 관리와 홍보를 강화해 거출금 납부율을 100% 가까이 끌어올려, 양돈산업과 농가의 위상을 더욱 높일 것이다.

2) 양돈 생산 기반 안정

단순히 돼지를 먹이는 시대는 지나간지 오래다. 안정된 소비시장을 확보하고 최대의 생산 효과를 보아야 한다. 때문에 지속적인 정보 제공과 교육은 필수이다. 거기에 올해는 양돈산업 현안 해결을 위한 전문가로 구성된 특별위원회 운영 및 양돈농가 상담센터 운영 등 대농가 서비스를 강화하여 농가들의 현장에서 부딪히는 어려움에 실제적인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사업 내용을 확대했다.

3) 양돈산업 및 국산 돼지고기에 대한 대국민 이미지 개선 사업

광우병과 조류독감에 대한 불안으로 돼지고기가 대체 육류로 부상되고 돼지 소모성 질병, 폭염 등으로 출하두수가 줄어들면서 지난 한해 사상 초유의 고돈가 시대를 맞았다. 당분간 공급 부족으로 인한 고돈가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급변하는 국내외 상황에서 이러한 호



▲ 지난 2004년에 방영된 '웰빙삼총사' TV광고 장면(좌측부터 인기 미녀 탤런트 김세아, 황신혜, 변정수씨)

〈표 4〉 2005년도 사업별 예산 배정 내역

항 목	사업 예산	비 율
소 비 홍 보	7,897,000	71.8%
교육 및 정보제공	995,400	9.0%
조 사 연 구	576,200	5.2%
징 수 수수료	180,000	1.6%
운 영 관 리	516,433	4.7%
예 비 비	834,967	7.6%
총 계	11,000,000	100.0%

황이 언제까지 계속될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 오히려 호황 속에 양돈농가가 무방비 상태로 어려움을 겪게 된다면 회복되는데 얼마나 오래 걸릴지 우려되는 상황이 된다.

오늘날의 소비자는 잘먹고 잘사는 것을 추구한다. 웰빙을 추구하는 소비자의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전문가가 단결해서 친환경, 안전한 돼지고기를 생산하고 그 우수성을 꾸준히 알려 소비기반을 확고히 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3. 사업별 세부 추진 계획

2005년도 사업별 예산 배정 내역은 〈표 4〉와 같다.

가. 소비홍보사업

올해도 소비홍보사업이 자조금 사업의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다. 전년도 인기 미녀 탤런트 3명을 내세운 웰빙삼총사 광고가 화제가 되면서 국산 돼지고기와 양돈산업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을 달리했다는 것이 전반적인 평가다. 공중파 TV와 라디오를 활용한 공격적인 광고 전략으로 수출부위의 소비촉진에도 크게 기여했다. 수출부위의 소비확대로 인해 부위별 내수시장이 안정화 되면 장기적으로 돼지가격이 크게 상승되는 효과를 더하게 될 것이다.

◆사업내용 : TV광고, 라디오광고, PR홍보, 전광판 광고, 인터넷 광고, 포크페스티벌, 요리강습 및 시식회, 요리책자 등 소비홍보물 제작 등

나. 교육 및 정보 제공

지난해와 같이 업계와 시장의 변화에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농가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신기술, 정책에 대한 농가 교육을 시행하며, 우수한 양돈 인력 양성에 주력하게 될 것이다. 특별히 올해는 지역별 생산자 교육을 강화해 사양, 질병, 번식, 분뇨 등 각 분야 별로 해당 지역 농가들이 요구하는 교육 및 세미나를 실시하여 농가의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업내용 : 거출홍보사업, 안전돼지고기 생산 제도 및 홍보, 지역별 생산자 교육, 세미나·워크샵·심포지엄 개최 및 후원, 양돈지도자연수회, 양돈인력 및 후계자 양성 교육, 생산자 대상 인터넷 정보 제공, 정기 소식지 배부, 2006년도 양돈수첩 배부, 돼지사진 콘테스트 개최 등

다. 조사연구사업

지난해보다 대농가 서비스를 대폭 강화했다. 특히 분뇨·악취 등 양돈산업 현안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를 위해 전문가들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정책, 제도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할 것이며, 친환경 양돈산업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조사연구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일선에서 농가들이 당면하게 되는 각종 보상, 제도,

민원 등에 대한 해결에 도움을 주고자 양돈협회 내에 양돈농가 종합상담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다. 그 외에도 소비홍보사업의 근간이 되는 돼지고기 우수성 연구 사업, 양돈자조금 사업의 지표가 될 자조금 운용 효과 분석 사업, 국산 돼지고기 판로 개척을 위한 해외시장 조사연구사업은 앞으로도 계속 추진될 것이다.

◆사업내용 : 생산기반조성 및 대외협력사업 (정책개발 및 제도 개선, 친환경 연구 개발, 양돈농가 종합상담센터 운영 등), 돼지고기 우수성 연구 및 홍보, 자조금 운용 효과 분석, 해외시장 조사연구 등

4. 맺음말

오늘의 호황이 언제까지나 계속될 수는 없다.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시장 개척에 노력해야 국내 양돈산업이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다. 양돈자조금 사업도 농가의 필요에 귀 기울이고, 시장의 변화, 업계의 변화에 촉각을 세우고 민첩하게 대처해서 농가에 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농가들도 친환경·안전한 돼지고기 생산을 소비자와의 큰 약속으로 삼고 기억한다면 우리 양돈산업이 국제 무대에서도 경쟁력을 갖추고 대접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비단 양돈자조금 사업 뿐만 아니라 국내 양돈산업이 앞으로도 발전하기 위해서는 나 하나쯤이야 하는 이기심을 버리고 국내 양돈산업을 이끈다는 자부심으로 모든 농가가 협력하여 줄 것을 기대한다. **양돈**

내가 남부하는 자조금으로
양돈산업 안정 및 발전 이루어낸다.